



에이스 윤석민 불운 '어찌할꼬...'



호투볼구 타선·불펜 엇박자 승수쌓기 잇단 실패
인터넷 악플 마음고생에 팀 부진 겹쳐 '부담백배'

에이스 윤석민이 시즌 첫 패였다. 이날 윤석민은 최고 150km의 위력적인 직구로 SK 타선을 제압하며 2009년 6월4일 두산전 이후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자신의 탈삼진 타이거를 세웠다. 그러나 타선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패전 투수의 명을 썼다. 잇단 악재를 만난 윤석민은 결국 경기가 끝난 후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윤석민은 올 시즌 5경기에 등판해 32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했다. 팀내 가장 많은 이닝을 책임지며 3.90의 방어율을 기록했지만 윤석민의 성적은 1승1패다. 첫 등판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후 3경기에서 불펜의 난조로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도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출발은 좋았지만 불펜과 타자들의 도움이 따르지 않고 있는데다, 팀의 부진도 계속되면서 에이스 윤석민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인터넷 홍역'까지 치렀다. 윤석민은 개인 홈페이지에서 일부 야구팬들로부터 악플에 시달리면서 속 앓이를 했다. 이 과정에서 윤석민과 팬들 서로 상처를 받았다.

윤석민은 27일 경기 등판에 앞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에이스'라는 이름을 지키고 싶은 욕심과 부담감, 야구 선수로 사는 외로움 등에 대한 심정을 담은 글이었다. 어느 경기때보다 혼신을 다해서 마운드에 올랐지만 팀의 승리를 지키지 못했던 에이스 윤석민은 그라운드에서 불이 다 꺼진 뒤에 도둑아이를 떠나지 못했다. 지난해 마무리 한기주의 이탈 속에 임시 마무리까지 자처했던 윤석민은 2010시즌 다시 또 힘겨운 봄을 보내고 있다.

윤석민은 27일 경기 등판에 앞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에이스'라는 이름을 지키고 싶은 욕심과 부담감, 야구 선수로 사는 외로움 등에 대한 심정을 담은 글이었다. 어느 경기때보다 혼신을 다해서 마운드에 올랐지만 팀의 승리를 지키지 못했던 에이스 윤석민은 그라운드에서 불이 다 꺼진 뒤에 도둑아이를 떠나지 못했다. 지난해 마무리 한기주의 이탈 속에 임시 마무리까지 자처했던 윤석민은 2010시즌 다시 또 힘겨운 봄을 보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1·2군 타격 코치 교체

타격부진으로 힘겨운 4월을 보낸 KIA 타격부진이 1·2군 타격 코치를 교체했다. KIA는 28일 1군 최경환 타격 코치를 2군

으로 내리고 2군에 있던 이견열 코치를 1군 타격 코치로 보직 이동했다. 선수 엔트리 교체도 이뤄졌다. 투수 이동현과 정용운을 2군으로 내리고 조재수와 임기준을 1군으로 불러들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K전 우천 취소'... 힘빠진 KIA에 단비

KIA 타이거즈가 날씨 때문에 웃고 또 울었다. 28일 SK 와이번스와의 힘든 일전을 앞둔 KIA 타이거즈의 최대 관심사는 날씨였다. 상대 SK가 11연승으로 기세가 오를대로 오른데다 힘빠진 방망이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내심 비가 많이 와서 경기를 쉬었으면 하는 게 KIA의 바

람이었다. KIA의 바람대로 오후 훈련이 진행될 때까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많은 비가 쏟아졌다.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 한참 내리뚝뚝 비는 잠잠해졌지만, 잔뜩 흐린 하늘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경기취소가 유력해 보였다. 이날 광주를 찾은 윤동균 KBO(한국야구위원회) 경기 운영위원은 평소 우천취

소 결정에 간간히기로 유명한 인물. 하지만 심상치 않은 광주 날씨에 윤 위원마저 "비 한 방울이라도 더 내리면 경기를 취소하겠다"며 KIA 덕아웃에 웃음을 선물했다. 윤 위원은 '외야에 바람도 많이 불고 날이 추워서 경기가 힘들다'는 KIA 관계자의 얘기에 직접 외야까지 나가보며 경기 취소 여부를 고민하는 듯 했지만 SK가 3루

덕아웃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 거짓말같이 1루쪽 하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던 KIA 관계자들은 일제히 허탈한 웃음을 터트렸고, 윤 위원은 '준비해'라는 한 마디로 이날 상황을 종료시켰다. 그러나 날씨의 변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비가 쏟아지면서 한 차례 중단됐던 경기는 KIA의 공격이 진행되던 3회말 무사 투아웃 상황에서 또 다시 중단됐고, 결국 오후 7시46분 우천 노계임이 선언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승엽 안타 4개 중 3개가 홈런포

불박이 1루수 경쟁 가세



'국민타자' 이승엽(34·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전매특허인 대포를 앞세워 불박이 1루 복귀에 승부를 건다. 이승엽은 28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돔에서 열린 주니치 드래곤스와 경기에서 우측 펜스를 넘어가는 비거리 130m짜리 장쾌한 솔로포를 터뜨리고 시즌 3호 홈런을 신고했다. 지난 14일 한신과 경기에서 마수결이 홈런을 쏘아 올렸고 24일 한신과 경기에서 두 번째 안타를 그린 뒤 이를 만능 홈런을 추가했다. 올해 터뜨린 안타 4개(22타수) 중 3개가 홈런이다. 주전 1루수에서 올해 대수비와 대타 요원

으로 입지가 급속히 좁아져 약진고투 중인 와중에 이승엽은 보름도 안 되는 사이 홈런을 3방이나 터뜨리고 거포의 자존심을 세워 가기 시작했다. 이승엽은 팀 내 홈런 순위에서도 알렉스 라미레스(9개)·오가사와라 미치히로(8개)·사카모토 하야토(5개)·아베 신노스케(4개)에 이어 5위로 뛰어올랐다. 이승엽보다 홈런을 더 때린 넷은 타석수에서도 4배 이상 많다.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희망적인 대목은 이승엽의 1루 경쟁자인 다카하시 요시노부 와 가메이 요시유키의 활약상이 그리 두드러지지 않아 성적에 따라서는 언제든 역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하라 다쓰노리 감독은 1루에서 세 선수가 '수준 높은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주전으로 번갈아 나선 다카하시와 가메이가 좀처럼 꺾어나지 못해 전략을 수정해야 할 판이다. 박빙의 순간, 대타로 나서는 이승엽은 여전히 상대팀에 위협적인 존재다. 득점권 타율이 0.200(5타수1안타)에 불과하나 볼넷과 몸 맞는 볼을 합쳐 5개나 얻어냈다는 건 상대 배터리가 이승엽의 한 방을 여전히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합스



8일 화순 다지리축구장에서 열린 제49회 전남도민체전 축구경기에서 광양시(분홍색)와 장흥군 선수들이 치열한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화순=서승원기자 mjna@kwangju.co.kr

추신수 4경기 연속 멀티히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공격과 수비에서 만점 활약을 펼치며 승리를 이끌었다. 추신수는 28일(한국시각)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계속된 미국 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 원정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 5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25일 오슬랜드와 경기부터 4경기 연속 안타 2개씩 쳐냈고 타율은 0.324에서 0.329(73타수 24안타)로 올랐다. 게다가 빨랫줄 송구로 홈에 쇄도하던 일본인 타자 마쓰이 히데키를 잡아낸 장면은 압권이었다. 4회말 2사 2루에서 에인절스 7번 타자 켄

드릭 하워드의 우전안타가 터졌다. 추신수는 달려오면서 볼을 쓸어담고는 지체없이 홈에 승부했다. 볼넷으로 나간 2루 주자 마쓰이 히데키는 이미 3루를 돌고 있었지만 홈에서 아웃됐다. 추신수의 정확한 원바운드 송구가 날아가 포수 루 마슨이 기다리면서 마쓰이를 태그했다. 현지 중계진은 '대단한 송구'라며 소리를 질렀다. 2-1 리드를 지킨 보살. 추신수는 이날 2타수 무안타에 그친 마쓰이와 한일 메이저리거 타자 대결에서도 완승했다. 선발 미치 탈보트가 6¼이닝 1실점 호투한 클리블랜드는 18안타를 퍼부어 9-2로 이겼다.

연합스

수영 김병준(강진) 첫 2관왕

곡성 볼링팀 대회 첫 금... 일부 종목 우천으로 순연



제49회 전남도민체전

수영 김병준(강진군)이 제49회 전남도민체전 첫 2관왕의 영예를 안았으며 곡성군 볼링팀이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김병준은 대회 이틀째인 29일 화순오성초수영장에서 열린 수영 남자부 배영 100m와 접영 100m에서 역영을 펼쳐 2개의 금메달

을 목에 걸었다. 이날 배영 100m 결승에서 김병준은 1분01초51을 기록하며 유병진(목포·1분03초98)·이지훈(광양·1분09초48)을 제치고 1위로 골인했다. 이어 열린 100m 접영에서도 김병준은 58초28로 추민중(목포·1분00초24)의 추격을 뿌리치고 우승했다. 지난 27일 사전경기로 열린 볼링 남자 3인조전에선 김현성·임달환·정원호가 출전한

곡성군이 204.3점을 합쳐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화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부 투포환 경기에서는 도재룡(보성)이 13m05를 던져 고관안(목포·12m50)·이정권(목포·12m40)을 가볍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육상 트랙경기에선 박주영(신안)이 5000m, 조봉용(순천)이 800m 그리고 우재은이 200m에서

각각 1위로 골인했다. 여자부 멀리뛰기에선 최영림(진도)이 5m 23으로 가장 멀리 뛰었다. 무등산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골프경기에서는 함평군이 남자부 정경호 2위, 여자부 신이린 1위에 힘입어 종합우승을 거뒀다. 화순군과 신안군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사이클 경기에선 남자 개인전 정대권 1위, 여자 개인전 노유정 2위를 기록한 강진군이 종합 1위를 기록했다. 한편 대회 이틀째인 이날 우천으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정구·테니스 경기는 순연됐고, 사이클은 경기장을 바퀴 도로에서 경기를 가졌다. 또 당초 오전 7시부터 시작된 골프는 흙에 밟음이 차 중단되었다가 오후 1시부터 속개되었다.

화순=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